

# UCL 32강 대진표, '손흥민, 호날두와 만난다'

### 토트넘,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도르트문트·아포엘과 함께 죽음의 H조

2017~2018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32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지난 25일(한국 시간) 모나코 그리말디 포룸에서 2017~2018시즌 UCL 32강 조 추첨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 추첨 결과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잉글랜드)은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비롯해 도르트문트(독일), 아포엘(키프로스)과 함께 죽음의 H조로 묶였다.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와 만남에 따라 손흥민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토트넘은 다음달 14일 홈구장인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치고 같은 달 27일 아포엘과 2차전을 치른다.

레알 마드리드와는 오는 10월18일 원정으로 첫 대결을 펼친다. D조와 C조도 만만치 않다.

유벤투스(이탈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가 D조에서 만났고, C조에서는 첼시(잉글랜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AS 로마(이탈리아)가 16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2년 만에 UCL에 복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벤피카(포르투갈)와 바젤(스위스) 등과 비교적 쉬운 A조에 편성됐다.

이밖에 B조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파리생제르망(프랑스), 안데르레흐트(벨기에), 셀틱(스코틀랜드)가 만나고 리버풀(잉글랜드)은 E조에서 숙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러시아), 세비아(스페인), NK마리보르(슬로베니아)를 상대한다.

◇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 결과

- ▲ A조= 벤피카(포르투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바젤(스위스), CSKA 모스크바(러시아)
- ▲ B조=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생제르망(프랑스), 안데르레흐트(벨기에), 셀틱(스코틀랜드)
- ▲ C조= 첼시(잉글랜드), AT마드리드(스페인), AS로마(이탈리아), 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
- ▲ D조= 유벤투스(이탈리아), FC바르셀로나(스페인),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
- ▲ E조=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러시아),



2017~2018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32강 대진표

- 세비아(스페인), 리버풀(잉글랜드), NK마리보르(슬로베니아)
- ▲ F조=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 니폴리(이탈리아), 페예노르트(네덜란드)
- ▲ G조= AS모나코(프랑스), FC포르투

- (포르투갈), 베식타스(터키), 라히프치히(독일)
- ▲ H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도르트문트(독일), 토트넘(잉글랜드), 아포엘(키프로스)

/뉴시스

### V호날두, 2년 연속 UEFA 올해의 선수상 수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가 2년 연속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호날두는 지난 25일(한국 시간) 모나코 그리말디 포룸에서 열린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 추첨식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2년 연속이자 통산 3번째(2014년·2016년·2017년) 수상이다. 호날두는 수상 후보였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다.

호날두는 2016~2017 UCL에서 총 12골을 터뜨리며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고 팀의 대회 2연패를 이끌었다.

한편 UEFA 올해의 선수상은 2011년 발롱도르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이 통합되자 유럽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기 위해 탄생했다. 수상자는 회원국 대표 55명의 저널리스트의 투표로 이뤄진다.

/김민근기자



### 임창정·공형진·정상훈, '로마의 휴일' 의기투합

웃길 줄 아는 배우들이 뭉쳤다. 임창정·공형진·정상훈이 의기투합한 영화 '로마의 휴일'(감독 이덕희)이다.

영화는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세 친구가 인생 역전을 위해 현금수송차량을 탈고, 나이트클럽 '로마의 휴일'로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세 배우가 친구 삼인방을 연기했다.

지난 24일 서울 등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로마의 휴일' 기자회견에서 임창정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코미디라고 생각했다. 실제 촬영장에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배우와 즐겁게 촬영했다"고 했다. 그는 "공형진과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함께 신나게 놀아보고자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공형진은 "바다할 이유가 없었다. 오랜만에 영화를 하는만큼 자연스러운 코미디가 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임창정의 팬이다.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었다. (임창정과) 수년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정상훈은 "임창정·공형진 선배가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나리오도 안 보고 결정했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 두 선배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출은 이덕희 감독이 맡았다. 이 감독은 '파이팅'(2001) '두사부일체'(2001) '조감독 출신이며 데뷔작인 '창수'(2013)에서 임창정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은 30일 개봉한다.

/뉴시스

## “두 자릿수 시청률 넘기고, 20%까지 갔으면”

### KBS 2TV 금토드라마 '최강 배달꾼' 고경표, 데뷔 8년만에 주연 맡아

“제가 온전히 주연을 맡은 건 데뷔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걱정과 부담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 호흡하다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KBS 2TV 금토드라마 '최강 배달꾼'(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에서 주인공 '최강수'를 연기 중인 배우 고경표(27)는 이같이 말하며, “시청률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지만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기고, 20%까지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첫 방송된 '최강 배달꾼'은 중국집 배달부 최강수의 성공과 사랑을 받고 경쟁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취약 시간인 금·토요일 오후 11시에 방송 중이지만, 꾸준히 8%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경표는 전작들에서처럼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투의 화신'(2016) '시카고 타자기'(2017) 등에서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연기를 선보인다는 점도 호평을 받는 이유다.

그는 이번 작품에 대해, “내용이 변화무쌍하고 속도감도 있어서 즐겁게 봐주는 것 같다. 대본만 봐도 지루하지가 않다. 방송 분량은 회당 60분 정도인데, 마치 10분 정도 본 것처럼 한 편이 지나간다. 유차하기도 오글거릿기도 하지만 그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고경표와 함께 채수빈·김선호 등 젊은 배우들이 활약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고경표는 이와 관련, “작품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과 연기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며 ‘또

래 친구들이라 즐겁고 모두 심성이 차해서 힘들어도 짜증 낼 일이 없고 현상이 즐겁다’고 했다.

대만 만민씨 양은 경쟁자 방송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소이기도 하다. '최강 배달꾼'은 JTBC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폼위있는 그녀'와 맞대결했고, 25일부터는 한예리·한스연·박은빈·김민석·안우연 등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청춘시대2'와 맞붙어야 한다.

고경표는 “개인적으로 '청춘시대' 팬이다. 만민씨들이 있는 작품이라 긴장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만화 같은 연출로 청춘들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